

## 『응지농서로 본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 서평 조선 후기 전북 지역 농업 연구의 새로운 지평

양선아\*

### 1. 18세기 후반 지역농법 연구의 지역별 각론의 출발

염정섭의 『응지농서로 본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은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應旨農書)를 중심으로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 농업과 농촌의 역사상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응지농서란 1798년 11월 정조가 반포한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에 응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료, 지방 유생, 서민 등이 올린 농서를 가리킨다. 저자는 전북 지역의 군현에서 올린 응지농서와 농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의 농업기술과 수리시설의 특징과 함께 농촌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농업이 중심 산업이었던 조선 사회에서 농업의 전개 양상에 대한 파악은 조선 사회의 성격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역사학계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축소되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자는 지난 수십년간 조선 시대 농업사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연구자 중 한 명이다.

『응지농서로 본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이를 발전시킨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2002년, 태학사)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는 문제의식을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조선시대 농법의 발달상을 전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에서 저자는 조선전기 농법의 양상

\*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E-mail: snayang44@naver.com

과 성격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농법의 변화와 발달상을 추적하고 이 시기 농업의 특징을 지역농법의 구조 속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저자는 각 지역의 토양, 바람, 수리 등 농업환경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그 지역의 독특한 농법을 지역농법으로 개념화하고 18세기 후반 지역농법의 구조와 특색을 농기구와 수리시설, 농력(農歷) 등을 통해 정리하였다.

『응지농서로 본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20여 년 전에 저자가 개괄적으로 제시한 바 있는 18세기 후반 지역농법의 구조와 특색에 관한 심화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우선 이 책은 18세기 후반 전북 농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론 수준에서 제시된 지역농법의 지역별 각론에 해당한다. 3장과 4장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기술과 수리시설은 저자가 이전 연구에서 농법의 구성 요소로 파악한 항목들이다. 이전 연구의 심화 연구라는 측면은 이 책의 연구 관심을 농촌과 농민의 변화 양상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결론에서 각 지역 농법의 특색을 세밀하게 밝히지 못한 점과 함께 농촌 현장에서 농업 발달이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지 못한 점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한 바 있다. 전북의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간인 농촌과 농업의 주체인 농민을 연구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 스스로 이전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집요한 연구 활동의 산물인 것이다.

제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책은 18세기 후반 전북의 농업과 농촌을 응지농서라는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분석 자료로 응지농서를 이용하고 있는 점 역시 이전 연구와 연속되는 지점이다. 저자는 이전 연구에서 응지농서를 적극적으로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응지농서의 진정(進呈) 실태와 내용과 함께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應旨人)의 구성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특정 지역의 응지농서를 해당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양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기획을 세운 것이다.

## 2. 책의 구성과 개요

이 책은 머리말을 제외하고 총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현황 및 문제 제기와 함께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2장은 정조가 추진한 ‘농서대전(農書大全)’ 편찬의 문

제의식과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 후, 전북 지역 응지농서의 전체적인 현황과 응지인의 성격을 분석하는 장이다. 3장과 4장, 5장에서는 각각 농업 기술의 지역적 성격, 개간·간척과 수리시설의 특징, 농촌과 농민의 변화 양상을 다루고 있다. 6장은 각 장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18세기 후반 전북 농업의 성격을 규명하는 장이다.

서론에서 저자는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다루는 연구를 특정 공간의 특색과 변동에 관한 고찰로 위치 지으면서, 이와 같은 고찰은 시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조선이라는 전체 사회와 전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1990년대 이후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 연구 경향에 대한 저자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지역사 연구에서 나타나는 지역 중심의 연구시각은 특정 지역의 역사를 독자적인 흐름으로 정리하는 편향을 낳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저자는 중앙과 지방의 긴장 관계라는 틀과 함께 지역 내부의 여러 가지 관계망을 포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사 연구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 지역 응지농서 현황과 응지인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2장은 응지농서를 전북 지역의 농업 생산과 농촌사회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장이다. 저자는 정조의 『권농정구농서윤음』은 국가의 소민(小民) 보호를 위한 권농책의 하나로서 종합적인 농서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조는 각 지역에서 올라온 응지농서를 토대로 종합농서인 농서대전을 편찬하고 이를 구체적인 농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응지농서의 대부분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과 같은 편년사서 및 개인 문집에 부분적으로 편집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응지농서의 수는 100여 편에 달하고 있다. 현재의 전북 지역에 해당하는 군현에서 올린 응지농서는 16편으로, 상소 형식의 응지농서가 3편, 책자 형태의 응지농서가 13편이다. 이밖에도 구체적인 군현을 확인할 수 없지만, 내용으로 보았을 때 호남 지역에서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응지농서가 2편 있다.

저자는 전북 지역 응지인들은 중앙과 지방의 관료직에 있거나 정조의 선집류 편찬 작업에서 교정유생(校正儒生)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정조가 추진하는 농정 개혁과 농서 편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들이었으며,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유생들은 노농(老農)에 상당하는 인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노농이란 농사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

다. 응지인들의 대부분은 노농의 도움을 받아서 얻은 식견이나 노농의 행적에 대한 견문에 근거하여 응지농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스스로 노농임을 자처하는 이들도 있었다. 응지농서의 내용이 노농의 식견과 행적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저자는 응지농서가 지역의 농업 현실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저자는 벼-보리 이모작이 이루어짐에 따라 벼농사 시기가 늦어진다는 무장(현 고창 남부지역) 유학 강순의 설명을 응지농서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의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호남 지역 상황에 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순장(巡將) 정도성은 재해에 강한 벼 품종의 하나로 순창도(順昌稻)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응지농서에서 확인되는 지역농법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 농업과 농촌의 양상을 시공간적인 확장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저자의 기획은 이 책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3장, 4장, 5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저자는 각 장에서 다루는 항목에서 전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특성을 밝히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연구를 포함한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당대의 일반적인 농업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응지농서는 전북 지역의 양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 기술의 지역적 성격을 밝히는 3장에서 저자는 먼저 벼농사 분야에서 전개된 농업 발달 양상과 응지농서에 나타난 전북 지역 벼농사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16세기 중반 이후 이양법은 삼남 지방 중에서도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에서 이양법의 보급 및 확산과 관련하여 관개 가능 여부, 토성과의 연관성, 재해 발생과 부세 감면 여부 등의 다양한 논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는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에서 벼농사 중심의 농업경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장의 후반부에서는 밭농사와 상업작물의 재배 양상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먼저 한전(旱田) 농업의 일반적인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17세기 들어와 보편화되었던 한전에서 1년 2작 재배법은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조선후기는 상업 작물 재배가 진전된 시기이기도 한데, 상업 작물 재배와 관련해서 전북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색 중 하나는 진안, 장수 등 전북 내륙의 산간 지역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남초 재배이다.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에서도 남초 재배의 확산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저자는 조선후기 전북 지역 한전 농업의 특색으로 구전법(區田法)을 소개하고 있다. 구전법은 응지농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선후기 여러 농서에서 소개된 농법이다. 박지원의 『과농소초(課農小抄)』 등에 따르면 구전법이란 노

동력을 절약하고 시비 효과를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경종법의 하나로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개간·간척의 실상과 수리시설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4장은 다시 개간·간척과 수리시설로 구분하여 전개 양상을 살피고 있다. 조선후기 전북 지역에서는 내륙 지역의 개간뿐만 아니라 해안 지역에서 간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개간과 간척 중 응지농서에서는 진전(陳田), 다시 말해 경지로 이용되다가 버려져서 묵히는 경지의 재개간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조는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개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다. 전북 지역의 응지인들은 진전 개간 시 정조의 개간 장려책을 확실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리시설과 관련해서 응지인들의 관심은 하천을 이용하는 천방(川防)에 주로 집중되었다.

농촌과 농민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있는 5장에서는 농촌 구조의 변화를 먼저 살핀 후 농민층의 변화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농촌 구조의 변화는 부세(賦稅), 양전(量田), 장시(場市)와 금광 개발 등과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항목들은 응지농서에서 언급된 것들이다. 부세와 관련해서 전북의 응지인들은 궁방(宮房)의 무도면세전에서 수세(收稅)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도장(導掌)들이 자행하는 남징(濫徵)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궁방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폐단들은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전북 지역의 응지인들은 불공평한 세금의 부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고 양전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18세기 후반 장시 발달과 관련하여 전북 지역 응지농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거사(居士)라 불리는 무리들의 존재이다. 응지농서에서 이들은 장시에서 산대놀이, 꼭두각시 놀음을 시행하면서 농촌 장시에서 이득을 꾀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장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들의 존재는 당시 농촌 장시의 발달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북 지역의 응지농서에는 광업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까지도 포착되고 있다.

응지농서에 나타난 전북 지역 농민층의 변화와 대응으로는 농우(農牛) 확보책과 농관(農官) 임명에 관한 언급을 들 수 있다. 농우의 확보는 농업생산과 농업경영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응지농서에 나타난 농우 확보책에 대한 언급은 당시 영농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관은 농업기술의 개발과 전승, 농본의 이념과 실천, 농정의 구체적 실시를 담당하는 자로서, 응지인들은 농관의 선발을 요청하였다. 응지인

들의 농관 임명 요청은 지역농법에 기반한 농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민층의 변화와 대응에서 전북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목할만한 것은 화리(花利, 禾利)의 존재이다. 화리는 조선후기 전주 지역에서 성행하였던 소작 관행으로, 일종의 도지권(賭地權)에 해당한다. 매매 및 양도, 상속 등이 허용되었던 화리는 조선후기 이래로 조선의 농민들이 토지에 대하여 증대시켜온 경작권, 소작권 등의 농민적 권리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화리는 응지농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조선총독부의 『소작관행조사』와 전북 지역에 남아있는 몇몇 고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결론에 해당하는 6장의 도입부는 조선후기 지역적 농업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에 할애되고 있다. 지역적 농업에 대한 인식은 다른 지역의 응지농서와 사찬농서 등에서 확인되는데, 토성, 민속, 바람 등의 자연적·인문적 요인 등이 지역적 농업의 특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론부에서 저자가 조선후기 지역적 농업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제시한 것은 조선후기 농업의 발달상은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구체성과 특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도식적으로 논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지역 농업에 대한 인식은 당대의 농업지식인들이 선취했던 문제의식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저자는 전북 지역은 여러 가지 농업 특색을 지닌 세부 지구가 위도상으로 연속된 전북 농업지대라는 개념화를 통해 하나의 농업 단위로 설정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정은 주민들의 농업생산 등의 경제활동이 역사적으로 상호 영향을 받는 지리적 위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 3. 응지농서 중심의 지역 농업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 책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의 응지농서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 농업의 특색을 분석하는 연구는 이 책이 최초라 할 수 있다. 응지농서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지역농서로서 응지농서가 가지는 농업사적 의의에 대한 저자의 가치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저자는 이전 연구를 통해 지역농법에 토대를 둔 지역농서의 생산은 지역농법 발달의 산물임과 동시에 지역농서의 확

립을 통해 그 지역의 환경에 알맞은 농법이 더욱 발전될 수 있었으며 이는 조선후기 농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저자는 응지농서가 해당 지역의 농업 실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농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응지농서를 통해 18세기 후반 전북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양상을 규명하고 있는 이 책의 기획은 특정 지역의 농업 발달상을 조선 전체 농업 및 사회 변동과 연관시켜 파악하고자 하는 저자의 문제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찬농서와 달리 응지농서는 국왕의 요청에 응해 중앙과 지방의 관료, 지방 유생, 서민 등이 작성하였다. 따라서 응지농서마다 형식과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응지농서의 전체적인 틀과 문제의식은 국왕이 제시한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응지농서는 18세기 후반 농업 분야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지점에서의 지역 실정을 보여주는 농업 자료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응지농서는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지역 농업의 양상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응지농서의 이와 같은 성격은 18세기 후반 전북 농업과 농촌을 총체적 또는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하나의 농업단위로서 전북 내 여러 지역이 맺는 유기적인 연결 관계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였다. 지역 농업과 농촌 자료로서 응지농서가 가지는 취약점은 응지농서의 상당수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과 같은 편년사 자료 및 개인 문집에 부분적으로 편집되어 전해지고 있는 실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이 책의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는 일제의 식민지 농업 침탈이 전북 지역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농업사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단초를 이 책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다음 연구 과제로 전북 지역, 더 나아가 전라도 지역 농업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정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가 향후 단계적으로 수행된다면 이 책의 서론에서 제시한 조선 농업의 근대적 전환과 전북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농업 침탈의 농업사적 배경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